

세계화의 장래

성정경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중동이 불타고 있고 유가가 기록적 인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가 침체되고 기후의 온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역협상의 좌초에 흥분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여하튼 세계화는 중단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에서 몇 개국의 경제관료들이 귀국보따리를 챙겼다고 큰 일이 있겠는가?

상당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은 태도가 금번 “도하”라운드의 좌초의 배경이 될 것이다. 편 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이런 재난이 특별이익 중심 정치가 보편적 선을 무력화시킨 신호가 될 것이다. 5년간의 정체로 보아 가능성이 높는데 이 좌초가 최종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해 질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하 라운드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좁다는 것이 수천 만을 빈곤에서 구출하고 부국들의 파괴적인 농업지원을 축소시키고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을 표현하는데 적당한 형용사 라면). 장기적으로 이번 도하라운드를 좌초시킨 다 자무역에 대한 코미트먼트의 부족이 전체적인 무역 체계를 잠식할 것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굳게정하는 사람들로 취급할 것이다. 무역회담은 언제나 성공전에 파탄을 격게 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4년에 끝낼예정이었으나 8년간의 고통스런 협상을 거쳤다. 이번 좌 초의 원인인 농산물 교역은 언제나 골치꺼리였다. 여하튼 범세계적 교섭이 실패되어도 적은 수의

국가군간의 지역협회는 배이상 빠르게, 그리고 절반의 혼란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전 무역회 담의 수확은 보존되고 있으며 누구도 무역을 약화시켜 중국이나 인도 등이 세계경제에 합류함으로 이루어진 번영을 위협하게 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의 실패는 전후 형성된 무역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외교가들이 이 체제가 기초로하고 있 는 콘피던스 트릭(confidence trick)에 패배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도하라운드뿐 아니 라 세계무역의 원만한 작동이라는 가치에 대한 가차 없는 무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득은 수출보다 수입에 있는 것이다. 더 싸고 질 좋은 물품의 수입은 소비자들이 비용 에 비해 더 큰 만족을 얻게 하며 또한 경쟁을 통해 국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통상의 교가들이 주문처럼 읊는 자국 시장 개방은 다른 곳에서 개방에 대한 대가라는 말은 국내 정치를 위 한 경제적 넌센스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유익한 넌센스인 것이 WTO체제에서는 한 무역당사국에 부여된 양허는 곧 자동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트릭이 세계가 수십년의 호 황을 누리게 도와준 것이다.

도하는 냉혹한 교역에 좀 도덕적 매력을 부여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으로 개발 라운드라는 아이 디아로 전혀 독창적인 픽션(fiction)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트릭이 모두 부국들이 자국경 제를 부흥시키는 대신 외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된다고 믿게 함으로써 역기능을 초래 했다.

어느 한 나라의 탓이 아니라 많은 참석자들의 잘못이다. 인도는 농업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하를 바라면서 농산물과 공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감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EU는 농산물 관세를 인하 하려 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과거 라운드에서 활력의 우선이었지만 금번에는 잘못된 협상보다는 무협상이 낫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일방적 무역 자유화의 논리는 오래전 잊혀진 것이다.

이것이 통상외교관들이 지역협정을 더 낫은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협정은 훨씬 수월하다. 이 협정은 전에는 희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WTO회원국이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협상의 장점이 무역을 창출하는지 아니면 전환시키는지에 달려있다. 그러 나 그의 광범한 효과는 파괴적이다. 양자 협상은 복잡하며 빈곤국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다자협 상에서는 빈국이 강국의 협상에서 강국에 업혀 갈수 있다. 양자협상에서는 각자가 따로 논다. 양자

| 오피니언 |

협정이 늘면, 그만큼 다자협정은 어려워진다.

도하의 실패는 퇴보가 아니고 전진의 실패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세계무역의 바다는 잠잠하다. 무역은 세계 GDP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높은 상품가와 견실한 성장은 보호주의 주장이 약화 되었음을 뜻한다. 비록 체제가 하루에 분해되지는 않겠지만 해가 지나면서 점차 녹슬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미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통상교섭권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도하를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이면 미국의 농업법 제정으로 농산물 교역관련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다. 금번 확인된 악의가 경기 하강으로 구·미(歐·美)에게 제조업분야 실적이 늘어나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지적 소유권 해적행위에 대한 불평이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첨예화될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WTO의 중요기능인 무역분쟁관련 절차가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실패후 다음에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경우에 의회는 그런 결정을 젊잖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합쳐보면 금번 라운드뿐 아니라 전 무역체제가 좌초될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도하라운드는 2001년 9.11후 번영하고 단합된 세계가 회교 테러리스트를 제압할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주 다시 그들이 정지시킬 힘이 없는 폭력사태에 직면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마음을 품었겠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

도정소식

연구원소식

RIS소식

RHRD 소식

충남소식

인삼메카서 24일간의 생명축제, 금산 인삼엑스포 개막

— 세계 15개국 참가... 9월 22일 ~ 10월 15일까지 일반 체험행사 가득 —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고려인삼의 세계화의 초석을 세울 ‘2006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종주지인 금산군 금산을 신대리에서 4년여의 긴 준비기간을 거쳐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9월 21일 열린 개막식에선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완구 충남지사,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 박동철 금산군수 등 각계 인사와 인삼 생산 농가, 인삼가공 유통업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개막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개막식에 앞서 일렉써니 그룹의 ‘전자바이올린’ 공연과 ‘생명의 뿌리 인삼 주제영상’ 상영, 성악가 임웅균씨의 공연, 인삼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타고(打鼓) 및 강처사 설화 무용 등 종합예술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보식 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2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4년 동안의 준비가 모두 끝나 이제 관람객을 맞게 됐다”며 “인삼엑스포가 2002년 열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이상의 성공을 거둬 세계적인 축제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엑스포가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는다”며 “무한한 생명의 꿈을 꾸고,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삼의 남북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한을 대표하는 금산 인삼과 북한을 대표하는 개성 인삼을 연계 발전시켜 한반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개장과 함께 관람객들을 맞는 인삼엑스포는 10월 15일까지 신대리 일대 10만8900㎡(3만3000평)에서 세계 15개국, 80개 단체가 참가하며, 주제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인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보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인삼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웰빙축제’다.